

베이징올림픽 한달 앞으로...팀 코리아의 난제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5일 인천선수촌에서 열린 '2022년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 및 베이징동계올림픽 G-30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베이징동계올림픽 성적에 대해선 "금메달 1~2개 정도를 보고 있다. 물론 더 따면 좋다"고 밝혔다.
인천 | 주원희 기자 tehh1147@donga.com

- 1 팬데믹·서방국가 보이콧 곳곳 변수
- 2 60여명 태극전사 컨디션 관리 숙제
- 3 코스 영향 큰 썰매 종목 난관 예상
- 4 금 2·종합 15위권...목표 하향 조정



1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2020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더 큰 공포가 엄습해왔다.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로서도 한 번 꺾끄러운 처지에서 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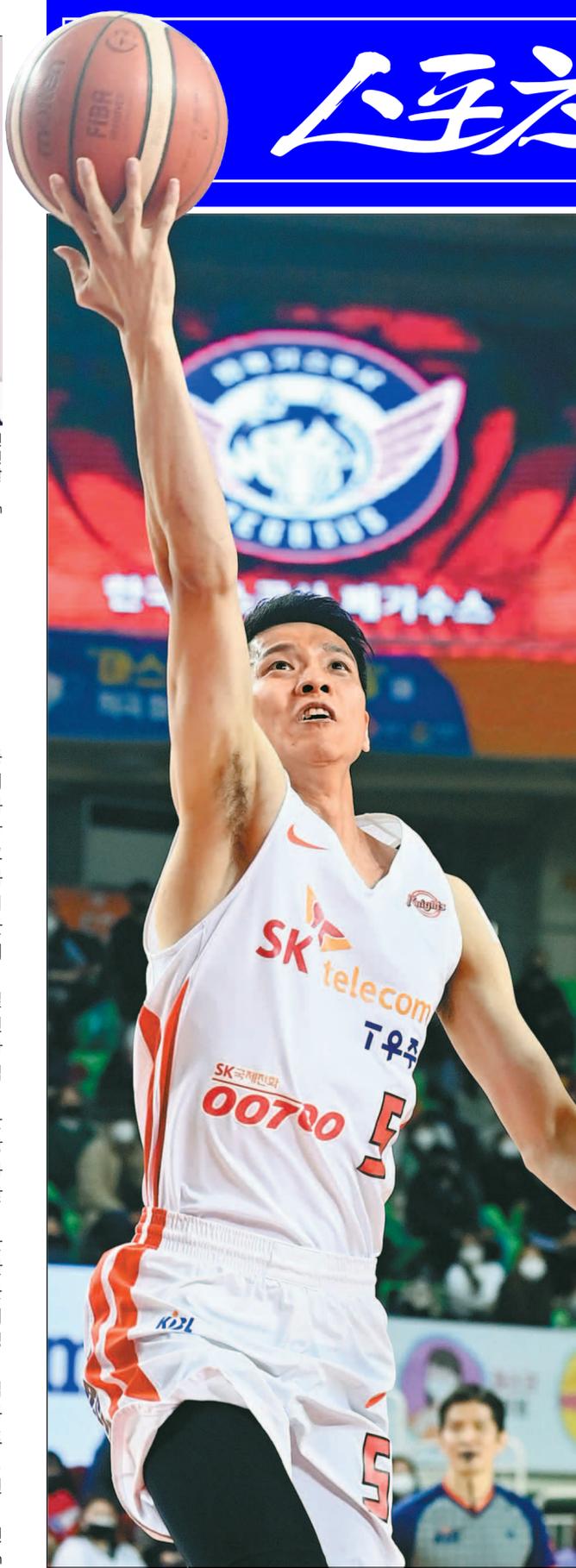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정확히 30일을 남겨둔 5일 인천선수촌에서 열린 2022년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 및 베이징동계올림픽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외교적 보이콧 등 여러 이슈가 겹친 대회"라고 털어놓았다.

중국의 현지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도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비공개라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진 못하고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통해서만 내용을 전달받았다. 우리 스스로 더 조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IOC와 조직위는 "방역과 시스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선수들이 입국한 뒤에도 엄격하게 관리해 대회를 마칠 때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100%의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하지 못한 태극전사들은 현지 사정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탓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선수들의 사기가 꺾이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7개 종목, 15개 세부종목에 참가하는 60여명의 태극전사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 회장도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올림픽에서 자신의 실력을 펼치기 위해 묵묵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관련기사 2면
인천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스포츠동아

2022년 1월 6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서울 SK)

'34세 해결사' 김선형 공격형 가드의 정석

11년차 베테랑 불구 스피드·개인기 최고
현대모비스전선 4쿼터 15점·결승골 빅쇼
"똥똥한 형들을 보니 결국은 훈련뿐이더라"



서울 SK 포인트가드 김선형(34·187cm)은 4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4라운드 울산 현대모비스와 원정경기에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경기 내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승부처였던 4쿼터를 그가 지배했다. 4쿼터 10분 동안 3점슛 3개를 포함해 15점을 쏟아냈다. 1점차로 뒤진 종료 1.4초 전에는 1대1 돌파에 이은 감각적인 플로터로 결승골을 터트렸다. '플레이션'이라는 자신의 별명에 걸맞은 활약으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KBL 무대에서만 11시즌째 활약 중인 김선형은 신인이었던 2011~2012시즌부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탁월한 운동능력과 스피드, 뛰어난 개인기를 갖춘 그는 공격형 가드가 많지 않았던 KBL에 새바람을 불고 왔다. 화려한 플레이 덕분에 '플레이션'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SK의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고, 남자농구대표팀의 일원으로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2017~2018시즌에는 팀과 함께 챔피언 트로피도 들어올렸다.

어느덧 '베테랑'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된 김선형. 그러나 여전히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형 가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즌 29경기에서 평균 13.0점·2.5리바운드·5.9어시스트를 올리고 있다. 개인통산 기록(평균 13.1점·3.1리바

운드·4.6어시스트)과 큰 격차가 없다. 이번 시즌 2라운드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선형은 5일 스포츠동아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대모비스전 4쿼터는 모처럼 마음먹고 한 번 해봤다. 오랜만에 에이스다운 경기를 한 것 같다"며 웃었다. 이어 "시즌 도중 다소 부침을 겪었는데, 코칭스태프와 많은 얘기를 나누며 이겨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운동능력과 경기력을 유지하는 비결로는 훈련을 꼽았다. 그는 "함께 했던 주희정 선배 등 리그에서 장수한 형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니 결국 훈련이었다. 시즌 도중 웨이트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는 등 훈련량을 늘린 덕분인지 아직은 운동능력이 유지되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김선형은 최근 리그에서 늘어나는 젊은 공격형 가드들 가운데 고양 오리는 신인 이정현(23)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는 "내 신인시절과 비교하면 어시스트는 더 좋은 것 같다. 맞대결을 해보면 이정현은 자신감이 엄청나고, 기량도 좋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좋은 후배들과 가드 맞대결이 흥미롭다는 그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팀의 경쟁력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더 기대된다. 다시 한번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인 2번째 우승 반지를 향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역시 플레이션!' SK 김선형은 4일 현대모비스와 원정경기에서 '에이스 모드'를 발동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공격형 가드의 표본인 그는 베테랑의 노련미까지 더해 개인 2번째 우승반지를 노리고 있다. 스포츠동아DB

ON AIR

쇼핑 LIVE **1879**

NAVER '1879쇼핑' 검색